

손현보 구속이 종교탄압이라는 헛소리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자, 그가 속한 고신 총회는 즉각 “정치적 탄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할 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 모두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 이번 사건은 결코 종교 탄압이 아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구속의 사유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손 목사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와 대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예배당과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지지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구속은 종교적 발언 때문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종교 탄압이라 주장한다면,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셈이다.

둘째, 법원의 결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성명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고, 목회자의 직분이 법을 넘어서는 면죄부가 될 수도 없다. 교회가 이를 종교 탄압으로 몰아가는 순간, 교회는 스스로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된다.

셋째,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은 교회의 명예를 오히려 훼손한다. 손 목사는 교단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님에도, 총회가 그를 마치 교회 전체의 상징처럼 내세운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 이는 고신 교단 전체가 정치적 편향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칠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때, 교회의 공적 신뢰는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넷째, 종교 탄압과 이번 사건을 구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한 종교 탄압이란 국가가 신앙 자체를 금지하거나 예배와 교리의 자유를 억압할 때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일탈 행위를 법이 다른 것일 뿐이다. 손 목사가 설교단을 정치 집회장으로 변질시키고, 특정 후보 지지를 반복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워온 것은 종교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질서를 해친 문제였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오히려 이번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단은 특정 목회자의 잘못을 감싸기보다, 법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정치적 구호보다 복음의 본질을 불드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사명이다.

손현보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스스로의 정체성을 흐리는 행위다.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교회는 먼저 정치적 일탈을 분명히 선을 긋고 공정한 법 집행을 견저히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올바른 길이다.

2025년 9월 14일
통권 13권 37호
창조절 2주일

2025년 뱅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뱅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민에스더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뱅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9

주일에배순서

오전 11시

사회 이진영 집사

찬양팀

인도 오광석 전도사

■ 찬양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운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가사는 모니터 또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 징 울리며 묵상하기

정방남 원로

■ 신앙고백

일어서서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찬송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 기도

한인수 집사

■ 성경봉독

로마서 11:29, 데살로니가전서 5:24, 이사야 55:8~9

로마서 11:29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55:8~9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ی 있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이 있다.

■ 설교

로마서 11:29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실패에 의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택하심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4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씀으로, 박해 가운데 흔들리는 초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부르심은 단순히 시작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성화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부르심을 확실한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8~9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는 말씀으로, 포로 귀환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당장은 알 수 없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은 반드시 선하고 완전한 구속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한계와 현재의 상황만으로 부르심을 해석하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직감하며, 또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부르심은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이나 우리의 부족함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부르심은 성화와 완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셋째, 부르심은 큰 그림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합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크고 선한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울림을 통해, 열리거나 닫히는 삶의 문을 통해, 내적 확신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의 권면과 확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고난과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미쁨”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고난은 부르심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부르심의 표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고, 신실하게 완성되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 더 크고 선한 길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고, 말씀과 성령과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며, 고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 광고

사회자


■ 파송곡

일어서서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축도


김용민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눔 여호수아 10:6~15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 영광석 전도사	벙커틴 (청소년) 메디피아공간대어 갈라디아서 5:16~26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최새론 전도사
---	---

수요예배 수 오후 7시 

찬양	주님과 같이
본문	욥기 16장
설교	욥의 대답 최새론 전도사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월	창세기 43장 베나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다
화	창세기 44장 유다가 베나민을 위해 인질을 청하다
수	사무엘상 2:27~36 천사의 심판 말씀
목	마가복음 15:37~41 예수님의 죽음, 그의 대관식
금	마가복음 15:42~16:8 예수님의 부활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오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민호 PD · 수요일 김시헌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 지하철 3호선 삼송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 마을버스 삼송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용현마을사거리 하차
-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이번주 예수혁명당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성경 속에는 바다를 가르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기적은 단순히 과거의 특별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설명하기 힘든 경험,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절묘한 순간들을 기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기적과 더불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김용민TV > 예수혁명당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교회소식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12월 계획 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주 8월 월례운영위원회에서 하반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9월 28일 수원 평화나비 특강

9월 30일 서울북노회 강북시찰회

10월 11~12일 청년부 수련회(인천 강화)

10월 19일 전교인 대상 비폭력대화 진행 (박지호 대표)

10월 29일 수요예배 이태원참사 현장예배(잠정)

11월 중 이웃 초청 간중 행사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감강 행사

11월 23일 오후 양미혜 장로 취임식(한신대 서울캠)

12월 5~6일 새해 운영위원회의(강원도 양양)

12월 24일 성탄절 전야 행사

12월 25일 연합성가대 행사, 흥대선원 스님들 초청

성탄절 연합성가대 12월 25일 오후 성탄절 당일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연합성가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연습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2일, 10월 26일 이상 한빛교회

11월 23일 생명교회 노원구 동일로230가길 10 (상계동)

12월 7일 열림교회 노원구 동일로231다길 6 (상계동)

12월 12~14일도 추가 예정

인문 사회학적 성서 읽기 오후 1시 30분부터 이용수 전도사 인도로 진행합니다

가을 심방 신청 담임목사가, 신청하는 교우들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로 심방합니다. 교회 휴대전화(010-9341-2012)로 뜻을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등록 부탁 교회당 앞 건물 신축 공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교회 주차 차량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승용차로 오는 분들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9월 교회 십일조 9월 십일조는 필리핀 타클로반에서 빈민과 함께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광명장로교회(사공세현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김 목사 일정 김용민 목사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남 여수로 서울북노회 강북시찰 목사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9월 교회 십일조 필리핀 타클로반 선교	9월 안내 청년부	지난주 현금액 2,852,004원
--------------------------	--------------	-----------------------